

南宋流民에 對한 小考

- 金과 對峙時期를 中心으로 -

金 容 完

< 目 次 >

- I. 緒 言
- II. 土地兼併과 流民出現
- III. 歸正人の 南移
- IV. 兩淮·湖北地域 住民의 流移
- V. 結 語

I. 緒 言

南宋의 爲政者들은 流民을 定着시키는 問題에 前代에서 그 由來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至 大한 關心을 가져왔다. 그 理由로서 宋 太祖가 文治主義를 標榜한 以來, 南宋朝廷도 仁과 義를 가장 重要시하는 儒敎思想의 影響을 받은 文人들로 構成되어 있었던만큼, 그 政策 決定에 仁思想이 그대로 適用되었던 程度 考慮되어져야할 것이나, 그보다는 그들을 安住시키지 못할 境遇, 國家에 미칠 禍를 念頭에 두어서였을 것이다. 즉 南宋時代에는 諸要因, 特히 對外關係로 인하여 中國歷史上 어느 朝代에도 比較될 수 없으리만큼 많은 數의 流民이 出現하였던바, 이들을 적당한 處에 安住시켜 生計를 保障시켜주지 못할 境遇, 살 터전을 찾아 각지를 流浪하다가 때로는 盜賊이 되어 中央政府로서도 堪當할 수 없는 事態를 誘發시킬지도 모르는 일로, 中國 歷代 王朝交贊의 한들은 이들 叛徒化한 流民들의 作用에 의한바 컸다는 歷史的인 敎訓을 익히 알고있어서 였다. 더우기 가까이는 北宋末과 南宋初年의 盜賊 蜂起狀況을 目擊한 바 있어서 였다. 그러면 南宋朝廷이 流民 安住를 위해 취한 對策은 具體的으로 어떠한 것이었을까?

南宋代의 流民이라 하면 南宋 管轄區域內의 流浪民 뿐만아니라, 異民族(女眞·蒙古) 治下에 있다가 南쪽으로 移居해온 사람들까지 包含시켜야하는 바, 그들 流民에 대한 對策은 다음의 세 가지 事項으로 要約해 볼 수 있다. 즉, 첫째는 그들을 荒田에 招置하여 그 土地를 開耕토록하는 것이었고 (이때 農器具·耕牛·種子 등을 支給하였고, 免稅의 特惠도 주었다.), 둘째는 그들중 軍務에 適格한 者를 兵士로 任用하여 俸給을 支給하는 것이었으며, 세째는 北에서 南移해

은 官吏·士人·商人 等の 境遇, 그 身分에 따라 職業을 保障해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첫번째와 두번째의 對策은 流民 個人에 對한 保護策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南宋朝廷의 立場에서 볼 때 各地에 散在한 荒田을 開墾하므로써 財政收入을 增加시킬 수 있고, 金·蒙의 頻繁한 侵入에 대처하기 위해 不足한 兵員을 增員시킬 수 있다는 一石二鳥의 對策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南宋朝廷이 流民의 安住를 위해 全力을 기울였던 또다른 理由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流民問題가 南宋의 政治·經濟上에 佔하고 있는 比重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도 理解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南宋史를 研究함에 있어 流民問題는 반드시 考究되어야 할 重要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 問題라 하겠다.

南宋時代의 流民問題에 關하여는 이미 많은 研究業績이 나온바 있으나, 이들 研究業績을 分析 檢討해 보면 ‘流民에 대한 對策은 어떠하였느냐’ 或은 ‘流民發生의 抑制策은 어떠하였느냐’ 라는 等의 問題에만 集中되고 있는 傾向이 있으며, 그것마저도 前者에 對하여는 그 範圍를 南宋朝의 荒蕪地 開墾策에만 限定시켜 研究의 실마리를 찾으려하고 있으며, 後者に 對하여는 佃戶의 流移 防止策에서만 그 端緒를 찾으려고 試圖하고 있다.

그러나 南宋時代의 流民問題를 다룸에 있어 그 對策이나 流民發生의 抑制策을 考究하는 問題도 重要할 것이나, 先行되어야 할 점은 流民發生의 背景, 流移地域, 流民集團의 規模 等에 대한 研究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問題가 詳細히 考究되지 않은 狀況下에서 그 對策이나 抑制策에 대한 明確한 糾明은 不可能한 일이기 때문이다.

筆者는 이러한 점에 관심을 두어 南宋時代의 流民問題를 考察, 整理해 보고자하나 本稿에서는 그 範圍를 縮少하여 南宋이 金과 南北으로 對峙하였던 期間으로 局限하였다. 그것은 이 時期가 南宋의 全期間을 통하여 가장 많은 流民이 出現하였던 時期인 만큼, 이 期間동안의 流民問題를 取扱하게 되면 南宋 全期間의 流民의 推移를 鳥瞰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를 위해 우선 土地兼併으로 인한 流民發生의 端緒를 整理하여 보았고, 다음으론 金治下에 있다가 大舉 南移해온 漢人들의 移居 原因과 그 實狀, 流民集團의 規模 等を 檢討하여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兩淮(淮西와 淮東)와 湖北地域 住民의 流移原因, 流移地域, 流民集團의 規模 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未熟한 敘述과 論理의 展開로 所期의 成果를 걸우지 못하였음을 自認하는 바이다.

II. 土地의 兼併과 流民의 出現

傳統中國의 어느 時代를 莫論하고 그 數가 많고 적고간에 流民은 出現하였다. 그 原因으로 여러가지 側面에서 考慮될 수 있을 것이나, 主要因은 어느 時代에 있어서나 土地의 均等한 分配

가 全地域에서 徹底하게 行해지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過去 中國의 社會가 農業을 經濟의 主軸으로 하고있던 社會였던 만큼, 土地의 均等한 分配가 行해지지 안케 되면 國民의 대 다수를 점한 農民들은 地主에 얽매어 항상 貧困을 벗어날 수 없게 되고, 더우기 天災地變으로 因한 凶年이 겹치게 되면 그들의 生計 維技에도 威脅을 받게되는 바, 이때 國家 또는 一般 地主들이 이들을 保護할 義務를 지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容易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結局은 田地를 떠나 流民이 되는 史例가 많았기 때문이다.

土地가 직접 耕種에 종사할 農民들에게 公平하게 支給되지않는 것은 소수의 權勢家나 豪族들에 의해 兼併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土地兼併現狀은 中國의 어느 時代를 莫論하고 存在해온 사실로 南宋時代에도 그 例外는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宋史 券 173 食貨志 農田 紹興 26年 4月 通判安豐軍王時升言에서

淮南土皆膏腴，然地未盡闢，民不加多者。緣豪強虛占良田，而無徧耕之力，流民襁負而至，而無開耕之地。

라 하여 紹興 26年(1156) 兩淮地域의 境遇, 豪族들이 土地를 虛占함으로 인하여, 流民은 開耕할 土地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同書 券 173 食貨志 農田 淳祐 6年 殿中侍御史兼侍講謝方叔言에서도

豪強兼并之患，至今日而極，非限民名田，有所不可。是亦救世道之微權也。國朝駐蹕錢塘，百有二十餘年矣，外之墾土日荒，內之生齒日繁，權勢之家日盛，兼并之習日滋，百姓日貧，經制日壞，……。

라 하여 權勢家들의 土地兼併現像이 날로 심해져 一般百姓들은 날로 窮乏해졌다 라고 하고 있는 史實에서 實感할 수 있다. 한편 歷代名臣奏議 券 260 虞允文上言에서

國家營田有年矣，蜀口之入歲不過十二萬石，武昌之入歲不過八萬石，荆·淮之間所入益少，而將相故家一歲之儲有至數十萬者，豈天下之大，乃不及之！

라 하고 있는 史實은 당시 權勢家들에 의해 土地가 兼併된 程度가 얼마나 深刻했던가를 立證해 주는 實例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인의 兼併으로 인한 土地의 不均等 分配가 南宋 流民集團 構成의 한 要因이 될 수도 있었다 하겠다.

그러면 上記의 事實로 인해 出現하였던 南宋時代의 流民의 數는 具體的으로 얼마나 되었으며,

- 1) 學界에 따르면 均田法이 施行되었던 北朝에서 唐中期에 이르는 期間조차도 土地의 均等分配가 全地域에서 철저하게 行해진 것이 아니라고 있는 만큼, 中國의 어느 時代를 莫論하고 土地의 均等分配는 行해지지 않았다고 結論지어도 좋을 것이다.

그 流移實狀은 어떻하였을까? 그러나 本稿에서는 다만 問題의 提起에 그치고 보다 깊이있는 研究는 다음 機會를 얻고자 한다.

Ⅲ. 歸正人の 南移

1127年 南宋이 建立되어 金과 南北으로 對峙한 以後, 金治下에 있던 漢인들이 大舉 南移해왔다. 이들을 南宋에서는 歸正人 (혹은 忠義人)이라 불렀는데, 南宋의 全 流民중에 이들이 차지하는 比率은 莫大하였다. 다음에서 이들 歸正人の 南來實態에 대하여 보다 詳細히 考察 하고자 한다.

1. 南移의 原因

(1) 直接的인 原因

金治下에 있던 漢인들로 하여금 北으로부터 大舉 南移해 오지않을 수 없도록한 直接的인 要因은 金の 被征服民에 대한 暴政이었다. 왜냐하면 金側에서 볼 때 소수의 女眞人으로서 다수의 漢人과 其他 被征服民을 統治하기 위해서는 彈壓手段을 쓰지않을 수 없었고, 해마다 增加되는 財政需要를 充當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經濟的인 收奪을 加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이러한 金の 被征服民들에 對한 暴政은 結局 被征服民들로서도 堪耐하기 어려운 程度로 苛酷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當時 金の 被征服民에 對한 彈壓이 얼마나 지나친 것이었는가에 對하여는 그들이 中原을 支配하면서부터 女眞人の 漢化 防止와 漢人の 女眞化를 戒해 彼我를 莫論하고 蓄髮과 漢服着用을 禁하였던²⁾ 史實에서 理解될 수 있고, 더우기 相當수의 人命이 殺傷되었던 文字의 獄³⁾은 金の 被征服民에 대한 苛酷한 彈壓의 具體的인 實例로 指摘될 수 있다.

그리고 金の 被征服民에 대한 經濟上의 收奪에 대하여는 過度한 稅金徵收의 史實에서 쉽게 理解될 수 있겠는데, 劉豫가 金을 代身하여 中原을 統治할 때, 그곳 住民들로부터 絮纒와 果蔬에서 조차 賦稅를 徵收하였던⁴⁾ 史實과, 金 海陵王 亮이 장차 南侵하려고 準備함에 미처 五年동안에

2) 尚重謙, 兩宋之際民衆抗敵史研究, 第4·民衆抗敵的原因(p196), 新亞學報 第五卷 二期, 1963, 台北.

3) 姚從吾, 姚從吾全集(3), 第五講, 第四·採行漢化與虐殺漢人(p122 ~ 124) 參照.

4) 宋史, 卷 174 食貨志 賦稅 紹興 9年;

初, 劉豫之僭, 凡民間蔬圃皆令三季輸稅, …… 起居舍人程克俊言.. 河南父老, 苦豫煩苛久矣, 賦斂及於絮纒, 割剝至于果蔬, …….

徵收할 稅錢을 借用이라는 명목으로 일시에 거둬드려 民怨이 되었던⁵⁾史實은 金의 被征服民에 대한 過度한 稅金徵收의 實例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被征服民에 加해진 金의 지나친 彈壓과 經濟上의 收奪은 結局 金治下의 漢人들이 北에서 南으로 移居해 오지않을 수 없도록 刺戟하는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上記의 事實의 에도 被征服民들을 더욱 困境에 몰아넣었던 事實은 金의 兵員不足을 메우기위해 그들을 徵發하였던 사실이였다. 이점에 대하여 具體的 內容을 살펴보기로 하자.

金初期の 兵制는 戰鬥力量이 있는 全部族員을 兵員으로 하여 戎事가 있으면 兵士로 服務시키고, 平時에는 狩獵에 從事케하는 猛安謀克制였다. 그러나 遼와 北宋을 征服하여 그들의 統治區域이 中國本土의 北半部에까지 擴大된 以後에는 이들 地域의 統治上 人的資源이 必要하였고, 더우기 戰爭規模의 擴大, 女眞部族員의 戰鬥力 弱化 등으로 그들 部族員으로서만 兵員으로하는 初期의 兵制를 그대로 維持 시켜나갈 수는 없게되었다. 따라서 이때 不足 兵員을 充當하기 위해 被征服民을 簽兵하였던 것이다.

金朝에서 被征服民의 簽兵이 始作된 것은 이미 金 太宗時代(1123 ~ 1134)부터 이나⁶⁾ 이때에는 그 數가 少數에 不適當 것이었으므로 注目할 사실이 아니고, 簽兵이 金 兵力의 主力을 이루게 되는 것은 熙宗(1135 ~ 1148) 以後의 일이었다.⁷⁾ 參考로 大規模의인 簽兵史例를 보면 下記와 같다.

o. 海陵王 正隆 4 年(1159);

南宋을 侵入하기 위해 女真人·契丹人·奚人 20 萬과 中都·南都·中原 住民 27 萬을 徵發하였다.⁸⁾

o. 章宗 泰和 6 年(1206);

南宋의 北伐을 防禦하기 위해 各路에서 15 萬人을 徵發하였다.⁹⁾

o. 哀宗 天興元年(1131);

蒙古의 侵入을 防禦하기 위해 汴民 20 萬을 徵發하였다.¹⁰⁾

以上에서 보는 바와같이 金은 戰爭이 있을 때마다 被征服民들을 大規模的으로 徵發하여 그들의

5) 建炎以來繫年要錄, 卷 192 紹興 31 年 8 月 己亥條;

初, 亮肆虐既久, 宗族大臣已悉被誅, 而舊臣如張通·古孔彥·舟蕭王之徒, 亦皆坐死. 國人莫有固志. 及將用兵, 又借民間稅鐵五年, 民益怨憤.

6) 王寂, 拙軒集, 卷 6, 先君行狀(p69) 參照.

7) 黃寬重, 略論南宋時代的歸正人(上) (食貨, 復刊 7 卷 3 期 所收), 中國歷史社會科學雜誌社, 台北.

8) 陳邦瞻, 宋史紀事本末, 卷 74 金亮南侵 (p114)

9) 金史, 卷 12 章宗本紀 4, 泰和 6 年 (p.11)

10) 上揭書, 卷 17 哀宗本紀(上), 天興元年(p.12)

不足兵員에 充當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簽兵이 被征服民에게 苦痛이 되었던 점은 戰鬪에 參加하여야 한다는 사실 보다도 出戰時 軍糧과 裝備를 自擔해야 한다는 부담이었다.

金の 兵士들이 出戰時 軍糧과 武器를 自擔하던 事實은 그 淵源이 오랜 것으로 그들이 部族團位로 散居하면서 狩獵과 牧畜을 主業으로 삼던 時期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러한 習慣이 생기게 된 緣由는 遊牧民 舉皆가 그렇듯이 戰爭을 하는 目的이 領土의 擴張에 있는 것이 아니라, 食糧과 財物의 掠奪에 있어 戰利品은 모두 掠奪者 個人의 所有로 하였고 때문에, 그 出戰 費用, 裝備 또한 自擔하던데¹¹⁾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女眞初期부터 慣行되어온 出戰裝備·費用 등의 自擔은 그들이 中原을 支配한 以後까지 持續되어 被征服民 簽兵의 境遇에까지 通用되었¹²⁾던 바, 이는 被征服民들의 또다른 苦痛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以上에서 金の 被征服民에 대한 苛酷한 彈壓, 經濟上의 收奪, 簽兵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諸要因은 結局 金治下에 있던 漢人들이 北으로부터 大舉 南移하도록 하는 直接的인 要因이었다 할 수 있다.

(2) 間接的인 原因

歸正人들을 北으로부터 南移해오도록 刺戟한 直接的인 要因은 金の 被征服民에 대한 苛政이 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南移가 金の 對被征服民 政策에 壓症을 느껴서만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南來해오기를 願한다하더라도 南宋朝廷에서 그것을 禁하였다면 그들의 南移는 不可能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金과의 和議條項에 歸正人の 南移를 禁한다는 條項이 있어 南宋朝廷에서 어쩔수 없이 그들의 南移를 禁止한 例도 있었¹³⁾으나, 대체적으로 그들의 南來를 歡迎하고 優待하였다.

南宋朝廷에서 歸正人들에 대해 優待政策을 쓴 意圖는 두가지 側面에서 考慮될 수 있겠는데, 그 첫째는 그들로 하여금 各地에 散在해 있는 荒蕪地를 開墾시키자는 것이었다. 南宋의 荒田分布 實態에 대하여는 本稿의 性格上 仔細히 言及할 必要는 없겠으나, 宋會要輯本(以下 宋會要로 略稱) 食貨 63 營田雜錄 紹興 2年 3月 10日條 淮南東路提刑兼營田副使王實言에

11) 方豪, 宋史(一), 第九章·北宋之亡(p.154), 中國文化學院出版部, 台北.

12) 黃寬重, 略論南宋時代的歸正人(上) 參照.

13) 宋史, 卷 32 (高宗本紀 9), 紹興 31年 5月 己丑;

命沿淮卅郡毋納北人.

○建炎以來繫年要錄, 卷 144 紹興 12年 3月 丁未條;

詔兩淮漕臣嚴切禁止私渡過進之人, 毋得少有透漏.

……江都天長縣，未種水田一萬六千九百六十九頃，陸田一萬三千五百六十六頃，……。

라하여 淮東路 天長縣 한곳의 荒田面積이 水田 16,969 頃, 陸田 13,566 頃 都合 30,535 頃에 達하였다 하고 있고, 宋史 券 173 食貨志 農田 乾道 4年 知鄂州李椿奏에서는

州雖在江南，荒田甚多。

라하여 鄂州는 비록 江南에 있을지나 荒田은 甚히 많다고 하고있는 사실들에서 理解할 수 있는 바와같이 당시 沿邊地域에는 荒蕪地가 散在해 있었던 바, 이들 荒田을 南來 歸正人을 招置해 開墾하러 하였던 것이다.

두번째는 金의 兵源을 減少시키자는 것이었다.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金은 本族의 兵源이 不足하여 被征服人들을 徵發하여 充當하고 있었던만큼 歸正人들이 南移해 올 경우 결국 金의 兵源을 減少시키는 結果가 될 수 있었다.

이와같이 歸正人들이 大舉 南移해 오게 되면 南宋의 立場에서는 큰 利益이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南移를 적극 觀望하고 優待措處를 취했던 것이다. 그러면 그 優待政策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南來해 온 歸正人은 크게 農民, 軍人, 官吏, 士人, 商人, 奴隸 等으로 分類할 수 있겠는데, 그들에 대한 南宋朝廷의 優待策의 要旨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 農民; 田地를 支給하고 各種의 惠澤一耕牛·種子·農器具의 貸與, 免稅一을 주었다.¹⁴⁾
- 軍人; 兵士가 되기를 願하는 者는 禁軍이나 廂軍에 編入시켰고, 農士를 받아 農耕에 從事하고자 하는 者에게는 農士를 支給하였다.¹⁵⁾ 이때 兵士로 編入되는 者에게는 北宋以來 刺面해 오던 것을 免해 주었다.¹⁶⁾

14) ○建炎以來繫年要錄, 券 91 紹興 5年 7月 戊子條;

至是三省復奏.. 歸附人民令所至州計口, 以提刑司錢人給一千, 所給田免稅五年, 未就緒者更與寬展年限。

○宋會要輯本, 兵 15 歸正, 紹興 32年 5月 26日條;

臣僚上言.. 沿邊州軍遇有自北來歸之人, 置籍抄錄姓名, 出給公據, 使皆着業, 其願爲農者, 許請官田, 立定頃畝, 永爲己業. 貧不能辦牛·種·農具者, 官給之, 仍免十年差科稅賦. …… 從之.

15) 宋史, 券 32 (高宗本紀 9) 紹興 32年 5月 甲子;

…… 籍諸州歸正人願爲農者給官田. 復租十年 願爲兵者赴軍中.

16) 宋會要輯本, 兵 15 歸正;

…… (歸正人) 願爲兵者, 發赴軍前, 免刺面, 補爲効用, …….

- 官吏；從前의 官階에 相當하는 官職에 任用하였으며, 特別한 功이 있는자는 1官을 올려 任用하기도 하였다.¹⁷⁾
- 士人；科擧 應試의 機會를 주었다.¹⁸⁾
- 商人；商稅의 減免惠澤을 주었다.¹⁹⁾
- 奴隸；그들의 身分을 良人으로 昇格시켰다.²⁰⁾

以上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南宋朝廷에서는 歸正人의 身分에 따라 優待策을 쓰고 있는데, 이는 結局 歸正人들이 大舉 南移해오도록 誘引하는 間接的인 要因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南移의 實態와 流移地域

(1) 南移의 實態

歸正人의 南來實態를 把握키위해 本項에서는 宋史 各 本紀에 記錄된 歸正人의 南移와 關聯된 事件의 數를 「表 I」과같이 統計해 보았다. 그것은 宋史의 記錄이 비록 特記할 만한 事件 一例를 들면, 그 南來人의 數가 多數에 達했다던가, 아니면 城全體를 들고 投降하였다던가 -에 局限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를 集計해 봄으로서 그 大綱의 內容은 把握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表 1>

年代	建炎 1~4	紹興 1~4	紹興 5~8	紹興 9~12	紹興 13~16	紹興 17~20	紹興 21~24
回數	1	7	4	1	0	0	0
紹興 25~28	紹興 29~32	隆興 1-乾道 2	乾道 3~6	乾道 7-淳熙 1	淳熙 2~5	淳熙 6~9	淳熙 10~13
0	7	2	1	0	1	0	0

17) 宋令要輯本, 兵 15 歸正, 紹興 4年 12月 8日條;

詔宿遷知縣張澤昨自僞(齊)境率衆來歸, 忠義可嘉理宜旌賞, 應所授僞齊官資, 並特與補正, 更與轉一官資.

18) 宋史, 卷 26 (高宗本紀 3) 建炎 4年 5月 癸亥;

詔中原淮南流寓士人, 聽所在州郡附試.

19) 宋會要輯本, 兵 15 歸正;

淮東西商旅所販物貨, 依省則稅並減半, 如歸正人與販, 特全免三年.

20) 慶元條法事類, 卷 78 蠻夷門·戶會;

諸化外奴婢歸明者, 悉改爲良, 本主雖先歸明, 亦不得理認.

淳熙14~嘉定1	嘉定2~5	嘉定6~9	嘉定10~13	嘉定14~17	紹定1~4	紹定5
0	1	3	5	3	0	1

上記表에서 歸正人の 南來 記事數가 가장 많았던 期間은 紹興元年(1131)~紹興8年(1138), 紹興29年(1159)~隆興2年(1164), 嘉定6年(1213)~嘉定17年(1224) 등 3個 期間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結局 이들 期間동안에 南來人の 數가 많았다는 傍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南宋이 金과 南北으로 對峙하고 있던 全期間(1127~1234)을 통하여 惟獨 上記 期間들에만 南來者의 數가 많았던 理由는 어디에 있을까?

그 事由에 대해 黃寬重氏는 다음과 같은 그의 見解를 披瀝하고 있다.²¹⁾

○紹興元年~紹興8年;

金の 政權基盤이 確固해져서 北方의 義軍들이 더이상 活動할 수 없게 되었으며, 金の 被征服民에 對한 彈壓이 더욱 苛酷해졌다.

○紹興29年~隆興2年;

金 海陵王이 南侵을위해 民兵을 多數 徵發하여 被征服民에게 莫重한 負擔을 안겨주었다.

○嘉定6年~嘉定17年;

宋·金間에 3次和議가 이루어진 후 蒙古의 成吉思汗이 中都에 까지 侵入하여 掠奪을 恣行 하였다.

黃氏의 이러한 見解는 卓見으로 筆者의 見解와도 一致한다. 따라서 南來人の 多寡는 時局과 密接한 關聯이 있었음을 理解할 수 있다.

(2) 流移地域

南宋時 荒田은 鄂州의 例²²⁾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揚子江以南 地域에도 散在해 있었으나 沿邊의 兩淮와 湖北, 京西地域에 오히려 더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宋會要 食貨63 營田雜錄 紹興10年 5月 16日條 臣僚言에

淮甸·襄·漢, 曠土彌望.

21) 黃寬重, 略論南宋時代의 歸正人(上)(食貨, 復刊 7卷 3期 所收), 中國歷史社會科學雜誌社, 台北.

22) 宋史, 卷173 食貨志 農田;

(乾道)四年知鄂州李椿奏..州雖在江南, 荒田甚多…….

이라 하고, 同書 食貨 6 墾田雜錄 嘉定 4年 5月 29日條 左司諫鄭昭先言에서도

窃惟兩淮·荆襄，實今日藩籬捍蔽之地，淮東如三陽滁陽，淮西如濠梁安豐，荆襄如德安信陽等郡流離之民，未盡復業，閑土曠土，不可以畝計，…….

라한 사실에서 理解될 수 있다. 그러면 당시 南宋朝廷에서 이들 地域의 荒田을 開耕키위해 취한 方案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 方案중의 하나는 歸正人들을 招置하는 것이었다. 즉 宋史 券 32(高宗本紀 9) 紹興 31年 8月 癸亥에서

分處歸正人於淮南諸州.

라한 사실은 兩淮地域에 歸正人을 安置한 具體的인 實例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同書 券 34 (考宗本紀 2) 乾道 8年 12月 甲辰에

詔京西，招集歸正人授田.

라하고 있고, 同書 券 28 (高宗本紀 5) 紹興 7年 8月 乙卯에서

……，招歸正人·復業人，耕湖北·京西閒田.

라한 사실은 京西와 湖北地域에 歸正人을 招置한 實例들이라 하겠다.

여기서 歸正인들이 定着한 地域은 沿邊의 京西·湖北·兩淮地域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一次 이들 地域에 定着하였던 歸正人들 중, 一部는 揚子江 以南 地域으로 再流移하는 者들도 많았던 것 같다. 그것은 後述하겠지만 이들 地域이 金の 頻繁한 侵入으로 永遠한 定着地域으로서 는 不適合한 때문이었다.

3. 南移 歸正人の 數

以上에서 歸正人 南來의 原因, 그 實態, 그리고 流移地域 等に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선 당시 北에서 南移해온 歸正人の 數는 얼마나 되었나를 把握해 보기로 하자.

歸正人の 數를 集計함에 있어 南來해온 官吏의 數가 約 2萬, 胥吏의 數가 約 1萬, 軍人の 數가 40萬, 都合 43萬에 達했다는 斯波義信氏의 研究結果²³⁾를 參考해 볼 수 있겠으나, 當時 情勢에 따라 그 數를 달리하였고 歸正人の 數를 正確하게 記錄해는 文獻도 未備되어 있는 形便이

23) YOSHINOBU SHIBA (斯波義信),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Markets in the Lower Yangtze valley (Crisis and prosperity in Sung China. 所收), 虹橋書店, 台北

므로 全 歸正人의 數를 正確하게 統計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本項에서는 南來集團의 規模와 大規模의 移住해 온 回數를 考察하므로써 그 數가 相當 數에 達했다는 사실만을 立證코져 한다.

歸正人들 中에는 個別的으로 南移해 오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나, 어느 한 將軍이 그 麾下에 있던 兵士 全體를 引率하여 南下해 오거나, 혹은 한 域主가 管轄하고 있던 城의 全 住民을 거느리고 來歸해 오는 境遇도 많았다. 高宗 紹興2年(1132) 夏 4月에 僞齊의 統領 王資가 그 麾下에 있던 兵士 全體를 引率하고 來歸한²⁴⁾ 史實은 前者의 具體的 實例라 할 수 있고, 高宗 元年(1131) 12月에 知海州 薛安靖이 僞齊의 都巡檢使 王企中을 殺害하고 全 軍民을 거느리고 城을 들어 來歸²⁵⁾했던 史實은 後者의 具體的인 史例라 할 수 있다. 한편 知順昌軍 孟昭의 例에서²⁶⁾ 보는 바와같이 全 部曲民을 引率하여 來歸하는 境遇도 있었다.

이와같이 引率 兵士 全體를, 혹은 管轄 軍民 全體를 거느리고 南下해 올 境遇, 南來集團의 規模는 相當한 規模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南移人 集團의 規模가 대단히 컸던 事實에 대하여 宋史 券 407 楊簡傳에서

……, 金人大饑, 來歸者日以數千萬計, 邊吏臨淮水射之, …….

라고하여 南來해 오는 者의 數가 하루에 數千萬에 達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좀 誇張된 表現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宋史 券 406 崔與之傳에서는

初金人既弊, 率衆南歸者多.

라 하여 漠然히 衆을 거느리고 南歸하는 者가 많았다고 記述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誇張된 表現이나 漠然한 記述은 古人들의 稀薄한 數值觀念에 基因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比較的 信賴할 수 있는 數字를 記述하고 있는 史例도 보이는 바, 宋史 券 32(高宗本紀9)紹興32年4月 癸酉에

……, 蒙縣民倪震率丁口數千來歸.

라고하여 蒙縣民 倪雲이 丁口 數千을 거느리고 來歸하였다 하고있고, 同書 券 39(寧宗本紀2)嘉定9年4月 戊戌條에서는

24) 宋史, 券 27(高宗本紀4)紹興2年4月 戊寅;

僞齊統領王資率兵來歸.

25) 上揭書, 券 26(高宗本紀3)紹興元年12月 辛巳;

……知海州薛安靖殺僞都巡檢使王企中, 率軍民以城來歸.

26) 上揭書, 券 32(高宗本紀9)紹興32年5月 乙卯;

知順昌軍孟昭率部曲來歸.

秦州人唐進與其徒何進等引衆十萬來歸.

라 하여 秦州人 唐進과 何進 등이 10萬人을 이끌고 來歸하였다고 하고있는 史實들이 바로 그것들이라 하겠다.

以上에서 歸正人 南來集團의 規模는 대단히 큰 경우도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와같이 大規模의 南移한 史例는 몇 차례나 있었을까?

이에 대해 仔細히는 알 수 없고 宋史本紀에 記述된 39回(表I 參照)가 參考될 수 있을 것이다. 이 回數로 南宋과 金이 對峙하였던 約 100年을 나누어 본다면 約 2年 6個月에 한번 꼴로 大規模의 南移가 있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南來해온 歸正人의 數는 相當수에 達했을 것이라는 推測이 可能할 것이다. 더우기 北宋 元豐 3年(1080) 全國의 戶數가 6,391,739 戶 이었는데,²⁷⁾ 淮水以北 地域이 除外된 南宋 嘉定 11年(1218)의 全國 戶數가 13,669,684 戶로 增加되어²⁸⁾ 北宋時代의 全國 戶數를 오히려 超過하였던 史實도, 南來 歸正人의 數가 相當수에 達했다는 傍證이라 할 수 있다.

IV. 兩淮·湖北住民의 流移

1. 流移의 原因

(1) 直接的인 要因

南宋이 金과 南北으로 對峙하고 있던 期間동안 兩淮와 湖北地域 住民 중 多數가 他地域으로 流移하였다. 그 原因으로 여러가지 側面에서 考慮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중 主要因은 金朝의 頻範한 南侵에 있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金朝의 南侵이 高宗 即位直後에 再開된 이래 南宋政府의 基盤이 確固해져 淮水에서 大散關에 이르는 線으로 南北對峙의 局面에 놓이게 된 이후에도 機會있을 때마다 恣行되곤 하였던바, 이들 兩地域은 金의 南侵時마다 戰禍를 당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宋會時 食貨 12 戶口雜錄 紹興 5年 8月 16日條 都督行府言에서

湖北·淮南自兵火之後, 百姓流亡, 田多曠土.

라하고 있고, 葉適의 水心文集 券2 定山瓜步石跋三堡塢狀에서도

27) 加藤繁, 宋代の戶口(支那經濟史考證 下冊 所收), 東洋文庫, 東京.

28) 文獻通考, 券 10.11, 戶口考.

……, 頃自虜寇驚駭, 淮人奔迸南渡, 生理破壞, 田舍荒墟.

라하고 있는 사실에서 理解될 수 있다. 그러면 이들 地域의 被害事實이 얼마나 深刻한 것이었나를 살펴기 위해 金の 侵入時 그들에 蹂躪당한 地域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 ◎ 建炎 3年(1129) 10月 金將 兀朮의 南侵時 蹂躪당한 地域
 - 淮西地域; 蘄州, 壽春府, 廬州, 濠州, 黃州, 和州
 - 淮東地域; 滁州
 - 江西地域; 吉州, 撫州, 袁州, 洪州, 筠州
 - 江東地域; 建康府, 廣德軍
 - 湖北地域; 潭州
 - 浙西地域; 湖州, 杭州, 秀州, 平江府, 常州, 鎮江府
 - 浙東地域; 越州, 明州
- ◎ 紹興 3年(1133) 僞齊 劉豫의 侵入時 蹂躪당한 地域
 - 京西地域; 隨州, 襄陽, 鄂州
 - 湖北地域; 信陽軍
- ◎ 紹興 4年(1134) 劉豫와 兀朮의 侵入時 蹂躪당한 地域
 - 淮東地域; 楚州, 承州
- ◎ 紹興 6年(1136) 劉豫의 侵入時 蹂躪당한 地域
 - 淮南地域; 定遠, 渦口, 壽春府, 廬州
- ◎ 紹興 11年(1141) 兀朮의 南侵時 蹂躪당한 地域
 - 淮西地域; 壽春府, 廬州, 和州
 - 淮東地域; 滁州
- ◎ 紹興 31年(1161) 9月 金 海陵王의 侵入時 蹂躪당한 地域
 - 淮西地域; 廬州, 和州
 - 淮東地域; 盱眙軍, 揚州
 - 湖北地域; 信陽軍
 - 利州地域; 大散關
- ◎ 隆興 2年(1164) 僕散忠義와 紇石烈志寧의 侵入時 蹂躪당한 地域
 - 淮東地域; 盱眙軍, 滁州
 - 淮西地域; 濠州, 廬州, 和州,
- ◎ 開禧 3年(1207) 南宋이 北伐을 試圖하였다가 도리어 金の 反擊으로 蹂躪당한 地域

29) 方豪, 宋史(二), 第一章·南宋之建國與金人渡江之失敗, 中國文化學院出版部, 台北

- 淮東地域；楚州，揚州，眞州
- 淮西地域；廬州，和州
- 京西地域；襄陽軍，襄陽府，隨州
- 湖北地域；信陽軍

以上에서 金의 南侵時 그들에 蹂躪당한 地域을 살펴보면, 頻繁히 그 戰禍를 당한 地域은 上記의 兩淮와 湖北地域이었다. 그런데 金인들이 他國을 侵略하는 本來의 意圖가 財物의 掠奪에 있었음은 이미 言及한 바이며, 더우기 張浚의 말³⁰⁾에서 理解할 수 있는 것과같이 그들은 被征服人의 人命殺傷도 임의로 恣行하던 者들이었던 만큼, 이들 地域의 住民들이 그들의 侵入으로 빚어질 禍를 避해 他地域으로 流移할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따라서 兩地域의 住民들중 多數가 他地域으로 流移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直接的인 要因은 金의 頻繁한 南侵의 結果라 할 수 있다.

(2) 間接的인 要因

後述하겠지만 兩淮와 湖北地域의 住民들이 流移한 地域은 크게 두 地域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揚子江 以南地域으로의 流移와 隣近地域 山·水砦로의 避身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는데, 前者의 境遇 일단 流移하게 되면 그 以後 派生되는 問題는 별로 없을 것이나, 後者의 境遇 새로운 問題에 逢着하게 되어 그들을 再流移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것은 隣近의 山·水砦로 避身하였던 사람들이 戰爭이 終熄되게 되면 故郷으로 돌아가 生業에 從事하게 되는데, 流移 期間동안 그들 生計의 根本인 田地가 다시는 耕作할 수 없을 정도로 荒廢되는 境遇가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 지역의 田地가 荒廢되었던 史實에 대하여 宋會要 食貨1 農田雜錄 紹興 10年 2月 17日條 臣僚言에

淮甸諸州，累經兵火賊馬屯泊，良田爲曠土，桑柘爲薪樵。

라 하고 있고, 同書 食貨12 戶口雜錄 紹興5年 8月 16日條 都督行府言에서도

湖北·淮南自兵之後，百姓流亡，田多曠土，……。

라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內容에 記事를 同書 食貨61 限田雜錄 乾道7年 6月 30日條 新除淮南運判向士偉言에서도

兩淮田畝荒蕪，……。

30) 續資治通鑑, 卷139 紹興32年 5月 癸亥條;

……(張)浚卽下令曰.. 兩淮比年累被荼毒, 父子·兄弟·夫婦, 殺傷擄掠, 不能相保, 今議爲必守之計;……。

라고 하고 있는바, 兩地域의 土地 荒廢程度가 얼마나 深刻한 것이었나를 理解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이들 地域의 土地가 荒廢하게된 理由는 土地를 耕作치 않고 長期間 放置한 데에 主要因이 있을 것이나, 水利施設이 破壤되어 灌溉가 不可能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宋史 券 176 食貨志 屯田 紹興 32年 督視湖北·京西軍馬注澈言에

荆·湖兩軍屯守襄·漢, 糧餉浩瀚, 陽古有二渠, 長渠溉田七千頃, 木渠溉田三千頃, 兵後堙廢, …….

라하여 一萬頃의 田地에 灌溉할 수 있었던 陽古地域의 二渠가 兵火로 破壤되었다고 하고있는 史實에서 充分히 엿볼 수 있다.

以上에서 兩地域의 農地 荒廢實狀을 살펴보았던 바, 이는 結局 隣近의 山·水湄로 避身하였던 이곳 주민들로 하여금 再流移토록 하는 間接的인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2. 流移地域

(1) 隣近 山·水湄로의 避身

兩淮와 湖北地域의 住民들이 流移한 地域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南宋朝에서 敵의 侵入을 防禦하기 위해 취한 戰略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防禦戰略과 이들 兩地域 住民들의 流移와는 密接한 關聯이 있기 때문이다. 南宋朝에서 異民族의 頻繁한 南侵에 對處하기 위해 취한 戰略중의 하나는 地勢로 보아 敵을 防禦하기에 適合한 山이나 湖水 周邊에 砦를 만들어 놓고 平時에 武器나 食糧을 備蓄하여 두었다가 戰爭 勃發時 隣近地域의 軍·官·民을 이곳으로 避身시켜 長期戰에 對備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戰術은 그 起源이 오랜 것으로 五胡의 侵入時 華北의 豪族들이 그 隸下에 있던 農民들을 거느리고 山間으로 들어가 自救를 꾀하던 데에서 그 萌芽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³¹⁾ 南宋時代에 들어서는 國家的인 次元에서 敵을 防禦하는 戰術로서 採擇되었던 것이다.

南宋時代로 들어와 이러한 戰術이 처음 採擇된 것은 高宗 南渡 以前의 일로서 建炎元年(1127) 7月, 中原이 크게 混亂하였을 때, 宋將 王彥이 金과 싸우다가 敗하자 太行山으로 달아나 무리를 모아 對敵했던³²⁾ 사실에서 그 한 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建炎元年(1127)에서 2년에 이르기까지 宗澤이 汴京을 守備하기 위해 城外 沿邊地區에 堅壁 24個所를 修築해 놓고 河東·河北地區의 山·水湄에 據據하고 있던 忠義民兵과 聯結하여 金의 侵入을 防禦하였던³³⁾ 사실도 山·水湄를 利用하여 적을 防禦하였던 史例라할 수 있다.

31) 金發根, 永嘉亂後北方的豪族, 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台北, 1964.

32) 宋史, 券 24 (高宗本紀) 建炎元年 9月.

33) 上揭書, 券 360 宗澤傳

이러한 戰術이 遊牧民과의 戰爭에서 戰功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遊牧民들이 騎馬術을 利用한 機動性으로 速戰速結을 건우고저한데 반해, 持久戰法을 쓰므로서 그들의 軍糧을 枯竭시킬 수 있다는 점이였다. 이러한 戰術은 初期에는 큰 戰功을 올리지못한 것 같으나, 後期로 들어오면서 戰功을 올린 境遇도 있었다. 즉, 建炎以來擊年要錄 卷 43 紹興 元年 3月 壬子條에서

先是, 張榮在通州, 以地勢不利, 乃引舟入縮頭湖, 作水寨以守. 金右監軍(完顏) 昌在秦州, 謀久駐之計. 至是以舟師犯榮水寨. 榮亦出數十舟載兵迎敵. 望金人戰艦在前, 榮皇遽欲退, 不可. 徐謂其衆曰: 無慮也. 金人止有數艦在前, 餘皆小舟. 方水退, 隔淖不能上岸. 我捨舟而陸, 殺棺材中人耳. 遂棄舟登岸, 大呼而殺之. 金人不能勝, 舟中自亂, 溺水陷淖者不可勝計. 昌收餘衆二千奔楚州. 榮護昌子塔佛寧, 俘虜甚衆.

라 하고 있는 바와같이, 張榮이 縮頭湖에서 金의 右監軍 完顏昌의 軍을 크게 擊破하였던 史實은 水砦를 利用해서 戰果를 세운 一例이고, 宋史 卷 453 張玘傳에서

於是(紹興2年) 僞齊河南安撫孟邦雄·總管樊彥直據洛陽, 兵直抵長水, 玘遣將陳俊守白馬山, 謝阜守船板山, 梁進守錦屏山, 盡匿精銳. 金兵深入, 玘戰東關, 三砦響應, 金兵潰. 玘率精騎三千, 一日夜馳三百里. 黎明抵河南, 邦雄就擒, 彥直遁去.

라 하여 張玘가 隸下の 兵을 白馬山·船板山·錦屏山에 分居시켰다가 僞齊의 河南安撫使 孟邦雄은 生捕하고 그 總管 樊彥直은 敗走시켰던 史實은 山砦를 利用해서 戰功을 세운 一例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山·水砦를 利用하여 戰功을 세우는 사례가 增加하자 南宋朝廷에서는 이를 國家的 次元에서 戰略的인 거점으로 삼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地方政府의 治所까지도 이곳으로 옮기는 史例가 있었던³⁴⁾ 것이다. 이때를 당해서 山·水砦는 沿邊地域에 無數히 設置되었으며,³⁵⁾ 그 規模 또한 본래 작은 據點에 不過하던 것이 食糧과 武器의 備蓄에 限하지 않고, 軍과 民을 常住시켜 田地를 耕作시키므로서 未來에 對備할 程度로 擴大되었다. 당시 山·水砦에 耕作土地까지 具備시켰던 事實을 宋史 卷 34 (孝宗本紀 2) 乾道 5年 9月 壬申에서

……命准西安撫司參議官許子中措置淮西山·水砦, 招集歸正忠義人耕墾官田.

(宗澤) 乃渡河約諸將共議事宜, 以圖恢復. 而於京城四壁各置使以領招集之兵.

又據形勢立堅壁二十四所於城外沿是陝西·京東西諸路人馬, 咸願聽澤節制.

34) 宋史, 卷 27 紹興 4年 11月 甲子;

……命俞樾·和諸州移治保聚.

35) 陶晉生, 南宋利用山水水寨的防守戰略(食貨月刊 7卷 1·2期 所收), 中國歷史社會科學雜誌社, 台北.

라 하고 있고, 同書 券 176 食貨志 屯田에서도

嘉熙四年, 令流民於邊江七十里內, 分田以耕, 遇警則用以守江, 於邊城三五十里內, 亦分田以耕, 遇警則用以守城, 在砦者則耕四野之田, 而用以守砦, 田在官者免其租, 在民者以所收十之一二歸其主, 俟三年事定, 則各還元業.

라한 사실에서 理解할 수 있다.

以上에서 南宋時代에 異民族의 侵入을 防禦하는 戰略上의 據點으로 利用되었던 山·水砦에 對하여 살펴보았는데, 金의 南侵時 兩淮와 湖北地域 住民중에는 이곳으로 避身하는 사람도 상당수에 달했다. 곧 宋史 券 42 (理宗本紀 2) 嘉熙 2年 10月 丁卯 吳潛言에서

宗子趙時暉集眞·滁·豐·濠四郡流民十餘萬, 團結十七砦, 其強壯二萬可籍爲兵, …….

이라고 한 바와같이 趙時暉이 兩淮의 四郡(眞·滁·豐·濠)流民 10餘萬을 17個所의 山·水砦로 團結시켰던 사실은 이곳 住民들이 亂이 發生하였을 때 山·水砦로 避身한 具體的인 實例라 할 수 있다. 한편 既存의 山·水砦가 없을 境遇, 流民 스스로가 舍心하여 山·水砦를 修築하는 例도 있었으니, 이러한 사실은 葉適의 水心文集 券 2 安集兩淮申省狀에서

……某窺照去歲虜入, 兩淮所殘破處安豐·濠·盱眙·楚·廬·和·揚凡七郡, 其民奔迸渡江求活者幾二十萬家, 而依山傍水相保聚以自固者, 亦幾二十萬家.

라하여 金의 侵入을 당한 兩淮 7郡地域의 住民중에 揚子江을 건너 南移한 家의 數가 20萬家나 되었으며, 山이나 水를 利用해 서로 保聚하여 自救를 꾀한 家의 數도 20萬家나 되었다고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2) 揚子江以南 地域으로의 流移

以上에서 金의 侵入時 兩淮와 湖北地域의 住民들이 그 戰禍를 避해 一次 避身한 곳은 隣近의 山·水砦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山·水砦로의 避身은 臨時方便에 不過한 것으로 戰爭이 長期化될 境遇, 恒久的인 對策이 될 수는 없었다. 더우기 山·水砦가 敵에 陷落될 수도 있다는 變數는 항상 存在하여 이들 流民들을 不安에 떨게하였다. 따라서 보다 安全한 地域으로의 流移는 不可避한 일이었다. 그러면 兩地域 住民들이 보다 安全한 避亂處를 찾아 流移한 곳은 어디였을까? 이점에 대하여 建炎以來繫年要錄 券80 紹興 4年 9月 乙卯條 張致遠터에

今江北流寓之人失所者甚衆, 而淮甸耕夫往往多在南方.

라고 하여 江北의 流萬人중에 居處를 잃은 者가 많은데, 淮甸의 農民 중 南方(江南)에 居處하고 있는 者가 많다고 하고 있는 史實에서 理解될 수 있는 바와같이 兩淮地域 住民의 境遇, 보다 安全을 구해 流移한 地域은 揚子江以南 地域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宋史 券 40 (寧宗本紀 4) 嘉定

12年 3月 癸亥에서는

……金人遂分兵自光州犯黃州之麻城，自濠州犯和州之石碛，自盱眙軍犯滁州之全椒·來安，及揚州之天長·眞州之六合，淮南流民渡江避亂。

라 하여 이지역 住民들이 江南으로 移住하였던 史實을 좀더 具體的으로 記述하고 있다.

한편 湖北住民의 境遇, 金의 侵入時 江南으로 流移하였음을 立證할 수 있는 根據史料를 接하지는 못하였으나, 理宗 嘉熙元年(1237) 蒙古의 侵入時 荆襄地區 住民들이 戰禍를 避해 江南으로 移住³⁶⁾하였던 史實을 미루어 이 時期에 있어서도 江南으로 流移해온 者들의 數는 상당수에 달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이 兩地域 住民들이 大舉 江南으로 流移하였던 것은 戰爭의 直接的인 被害를 避한다는 것이 그 첫째의 目的的이었겠지만 당시 江南地域의 安定과 繁榮에 誘引되어서 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3. 流民의 數

兩淮와 湖北地域의 住民들중 他地域으로 流移한 者들의 數는 얼마나 되었나를 統計한다는 것도 또한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다음에 言及될 史料들을 통해서 그 數가 상당수에 달했음만 立證하고자 한다.

먼저 兩淮地域에 있어서는 이미 取扱한 바 있는 葉適의 水心文集³⁷⁾에서 어느 時期의 史實인지는 分明치 않으나 安豐·濠州·盱眙·楚州·廬州·和州·揚州等 7郡의 住民으로 渡江한 戶數가 20萬家, 山·水砦로 避身한 戶數가 20萬家, 都合 40萬家の 住民이 他地域으로 流移하였다고한 史實에서 그 流民集團의 規模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理解할 수 있다. 그리고 兩朝綱目備要 券9 開禧 2年 11月 甲辰條에서 開禧兵水後 流移한 流民의 數에 대해

兩淮……, 土民奔逃渡江者十餘萬, …….

라하여 兩淮 土民 10餘萬이 揚子江을 건너 南下했다하고 있고, 宋史 券42(理宗本紀2) 嘉熙 2年 10月 丁卯 吳潛言에서도

宗子趙時彥集眞·滁·豐·濠四郡流民十餘萬, 團結十七砦…….

36) 宋史, 券42, 嘉熙元年 五月 甲子;

兩淮·荆襄之民避地江南, 沿江州縣間有 招集振卹.

37) 券2 安集兩淮申省狀.

라하여 趙時暉이 眞·滁·豐·濠州 等 4郡 流民 10餘萬을 山·水湄로 避身시켰던 史實을 言及하고 있는 바, 上記 史料들을 통해서 兩淮地域 流民의 數는 상당수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湖北地域에 있어서는 流民의 數를 具體적으로 言及하고 있는 史料를 미처 접하지 못하였으나, 北宋 崇寧 元年(1102) 56萬戶에 달하였던³⁸⁾ 路全體의 戶數가 紹興 3年(1133)에는 15萬戶에도 未達되었던³⁹⁾ 史實에서 그 流移者의 數가 多大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또 宋史 卷 174 食貨志 賦稅 紹興 23年에서

……, 荆南, 戶口十萬, 寇亂以來, 幾無人跡.

라하여 10萬에 달하였던 荆南의 戶口數가 金의 侵入後 人跡을 볼 수 없다 하고 있고, 同書 卷 174 食貨志 賦稅 淳熙 3年 臣僚言에서도

……, 今湖北, 惟鼎澧地, 接湖南, 墾田稍多. 自荆南·安·復·岳·鄂·漢·沔, 汙萊彌望, 戶口稀少.

라하여 鼎澧地域을 除外한 湖北 全地域의 戶口가 稀少하다고 한 史實들에서도 이 지역의 住民 중 他地域으로 流移한 者의 數는 상당수에 달했음을 살필 수 있다.

V. 結 語

南宋과 金이 南北으로 對峙하고 있었던 期間(1127 ~ 1234)동안, 南宋地域에서는 以前의 時代에서 그 由來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많은 數의 流民이 出現하였다. 特히 이 期間에 많은 數의 流民이 出現한 原因으로 少數人의 兼併으로 因한 土地의 不均等한 分配 問題도 考慮될 수 있을 것이나, 主要因은 金 治下에 있던 漢人들이 大舉 南移해 왔으며, 沿邊의 兩淮와 湖北地域의 住民 중 多數가 他地域으로 流移한데 基因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들의 流移 實狀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먼저 南宋朝에서 歸正人(혹은 忠義人)이라 불리웠던 金 治下에 있던 漢人들이 南移한 實狀을 要約해 보기로 한다.

歸正人들로 하여금 北으로 부터 大舉 南移해 오도록 한 直接的인 要因은 金朝의 被征服民에 對한 苛政이었던바, 그 內容은 다음의 세가지 점으로 要約해 볼 수 있다. 즉 첫째는 被征服民에 對한 지나친 彈壓手段을 指摘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金側에서 볼 때 少數로서 多數를 統治하기

38) 宋史, 卷 88 (地理志) 荆湖北路.

39) 建炎以來繫年要錄 卷 71 紹興 3年 12月 庚戌條.

위해서는 不可避한 措處였는지 모를 일이다. 두번째는 經濟上의 收奪을 들 수 있겠는데, 이는 戰爭規模의 擴大·政府機構의 擴張 등으로 繼續 增加되는 財政需要를 充當키 위한 措處였다. 셋째는 募兵의 問題라 할 수 있겠는데, 이는 金의 統治地域이 擴大되어 多數의 部族員이 統治人力으로 充當되어 兵源의 減少를 超來케 되자, 그들 部族員으로서만 兵員으로 하는 初期의 兵制를 維持할 수 없게 된 때 따른 措處였다. 이와같은 措處들은 被征服民들로서도 堪耐해내기 어려운 程度로 苛酷한 것이었던바, 結局 金治下의 漢人들로 하여금 南移하도록 하는 直接的인 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當時 南宋 朝廷에서는 곳곳에 散在해 있던 荒田을 開墾키 위해, 그리고 金의 兵源을 減少시키기 위해 그들의 南來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우대조치를 취하였는데, 이 또한 歸正人들이 大舉 南移해 오도록 하는 間接的인 要因이었다.

그들의 南來는 南宋이 金과 對峙하였던 全期間에 걸친 것이었으나, 그 規模面에서나 南來의 頻繁함에 있어서나 割目할 期間은 다음 3個 時期이었다. 즉, 第1期은 紹興元年(1131)에서 紹興8年(1138)에 이르는 期間이 되겠는데, 이 期間은 金의 政權基盤이 確固해져 북방의 漢人義軍들이 活動할 수 없게 되었으며, 金의 被征服民에 對한 彈壓이 더욱 苛酷해진 期間이었다. 第2期은 紹興29年(1159)에서 隆興2年(1164)에 이르는 期間인데, 이때는 金 海陵王이 南侵을 위해 被征服民들을 大舉 徵發한 期間이 있다. 第3期은 嘉定6年(1213)에서 17년에 이르는 期間인데 이때는 蒙古의 成吉思汗이 中都에 까지 侵入하여 掠奪을 恣行한 期間이었다. 따라서 南來人의 多寡는 時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처음 定着한 地域은 揚子江以北의 沿邊地域이었는데, 이는 南宋朝에서 이들 地域의 荒田을 開墾키 위해 이들 地域에 그들을 招置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金의 頻繁한 南侵은 이들을 항상 불안에 떨게 하였던 바, 揚子江을 건너 南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數에 대하여는 精確하게 統計할 수 없으나, 南移集團의 規模가 數千 혹은 10萬에 達하였으며, 大規模的으로 南移한 경우가 39件이나 되었던 점을 미루어 그 수가 상당수에 달하였음은 추측이 된다.

다음은 兩淮와 湖北地域 住民의 流移문제인데, 그들로 하여금 大舉 他地域으로 流移토록 한 要因은 金朝의 頻繁한 侵入의 結果이었다. 즉, 이들 지역은 8次에 달한 金朝의 대규모적인 南侵時, 상습적으로 유린되어 人命의 殺傷과 財産의 掠奪을 당해왔던 바, 그들이 타지역으로 유리한 이유는 戰禍를 避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들 지역의 토지 황폐 사실도 이들 주민들을 재류리토록 하는 間接的인 요인이었다.

그들이 流移한 地域으로는 우선 隣近의 山·水砦를 들 수 있겠는데, 이는 地勢로 보아 敵을 防禦하기에 적합한 地域에 食糧이나 武器를 비축하였다가 敵의 侵入時 인근의 軍·官·民을 이곳으로 避身시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치한 戰略上의 據點이었다. 그러나 이들 隣近의 山·水砦로의 避身은 임시 방편에 不遇한 것으로 戰爭이 장기화될 경우 恒久的인 피난처가 될 수는 없으며, 더우기 山·水砦가 敵에 陷落될 수도 있다는 變數는 항상 존재하

여 이들 流民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피난처로의 流移는 不可避한 일이었던바, 그곳은 唐宋以來 번영을 구가하고 있던 揚子江以南 지역이었다. 그러면 揚子江以南 地域으로 流移해온 유민의 數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그러나 이 또한 정확하게 통계할 수는 없고 上述한 내용을 통해서 상당수에 달했음이 입증된다.

— Summary —

A study on displaced peoples in the Southern Sung period
— Stressing on the confrontation period with the Chin(金) dynasty —

Yong-wan Kim

In the Southern Sung period, a number of displaced people began to appear with having had no parallel in history. I argue that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event: first, a number of Chinese (Kuei Cheng Jen, 歸正人) in the northern part moved to the south as a group; Second, inhabitants of Liang-Huai (兩淮) and Hu-Pei (湖北) moved to the south, too.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is event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two part (A, B)

A. Kuei Cheng Jen's emigration to the Southern Sung

1) Cause:

First, Chinese in the northern part were disgusted with Chin's plundering as well as his continuous oppressive measures. The Second cause was due to Southern Sung's hospitality policy to them.

2) The circumstance at that time: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was the group which directly moved into the Southern part of the Yangtze River, and the other was the group which settled dow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Yangtze River and then moved to the south.

3) The number of emigrants:

There were lots of groups which came in from the north to the south, one of which numbered very large a hundred thousands. Nowadays we can't find out the accurate number but only estimate numberless people to have moved in.

B. The Liang-Huai (兩淮) and Hu-pei (湖北) emigration

1) cause:

First, the residents in this area tried to escape a disaster because they had often suffered human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by Chin. Second, owing to the continuous war between Chin and Sung their houses, villages and farms were devastated, so they wanted to search for another place to settle down in.

2) emigrant region:

Some of them took refuge in fortified places near the mountains and lakes, while most moved to the southern part of Yangtze-River.

3) the number of emigrants:

we can't find out the accurate number of emigrants in this area but estimate numberless people to have moved in.